

1)<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②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③ ‘삼밭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⑤ ‘덜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가)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닥

(다)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2) 밑줄 친 부분이 (나)의 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우개로 낙서를 쓱쓱쓱 지웠다.
- ② 그는 눈을 쓱쓱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 ③ 시계는 밤새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했다.
- ④ 그는 친구의 잘못을 얼렁뚱땅 넘어갔다.
- ⑤ 김치볶음밥은 별 재료 없이도 똑딱똑딱 만들 수 있다.

3) 밑줄 친 부분이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생이 어제 일찍 잤다.
- ②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 섰다.
- ③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 ④ 동생이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갔다.
- ⑤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썼다.

4)<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였을 때,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① 명절도 설 겸 해서 한번 다녀가게.
- ②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 ③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 ④ 목장에는 서너 마리의 말들이 한가로이 놀고 있다.
- ⑤ 내년도 총예산은 구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 구십팔원이다.

5)<보기>는 띄어쓰기에 대한 게시판의 문답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문] 선생님, 문장의 각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띄어쓰기를 하려고 하니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답변] 맞아. 특히 조사와 다른 품사 중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헷갈리지. 그런데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조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붙여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단다. 그리고 의존 명사는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쓸 수 없거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단다.

- (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 이번에 새로 들어선 건물은 대궐만큼 크게 지어졌다.
(다) 오늘 세시까지 사과 열 개를 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라) 너무 애타게 애원해서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마) 내가 한 약속대로 일을 끝내자마자 동생과 여행을 떠났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6)<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임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 ① ㉠ 오뚝이 ② ㉡ 짝두기
③ ㉢ 깨끗이 ④ ㉣ 곱곱이
⑤ ㉤ 가만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말을 소리대로 적을 경우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불편이 생기므로 기본 형태를 통일해 가독성(可讀性)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이 또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1.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깨[어깨], 잔뜩[잔뜩]'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으며, '뚝뚝뚝뚝[뚝뚝뚝뚝], 쓱쓱쓱[쓱쓱쓱]'처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는 그 부분을 같은 글

자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굳이[구지]’와 같은 구개음화나 ‘첫[첸]’과 같은 ‘ㄷ’ 소리 받침 등 단어의 발음이 원래 형태와 달라진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혜택’, ‘핑계’와 같은 단어에서 모음 ‘ㅞ’가 [ㅞ]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ㅞ’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 형태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에서는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와 파생어에서도 어원이 분명한 경우는 ‘곳곳이’와 같이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다-가니’, ‘긋다-그어’처럼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으며, ‘끄트머리, 부리나케’와 같이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총칙, 제2항). 이에 따라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가윗글과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1>의 ㉠~㉣을 바르게 수정한 것은?

보기 1

아무런 희망 없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제 삶은 항공 정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업 체험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로 모형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격납고라는 곳에서 실제 비행기를 보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하고 ㉢**계신 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기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항공 정비사와 기술사들을 보면서 저는 제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돼**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보기 2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제35항 모음 ‘ㅛ,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엇-’이 어울려 ‘ㅛ/ㅜ./’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니’ 뒤에 ‘-어, -엇-’이 어울려 ‘왜,’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ㅏ, ㅑ, ㅓ, ㅕ, ㅖ’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 띄게 → 띠게
- ② ㉡ 만들 때까지만 → 만들때까지만
- ③ ㉢ 계신 지가 → 계신지가
- ④ ㉣ 드러나 → 들어나
- ⑤ ㉤ 돼 → 되

가윗글을 바탕으로 단어의 표기와 띄어쓰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 내지 스물’에서 ‘내지’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에 쓰이는 말이므로 띄어 쓴다.
- ② ‘굽주리다’는 ‘굽다’와 ‘주리다’가 합쳐진 합성어로 어원이 분명하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 ③ ‘귀머거리’는 ‘끄트머리’처럼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④ ‘시계’는 ‘혜택’, ‘핑계’와 같이 모음 ‘ㅞ’가 [ㅞ]로 소리가 나지만 원래 형태를 밝혀 ‘시계’로 적는다.
- ⑤ ‘목거리’는 ‘목에 거는 물건’이라는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9)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나)
- ㉠ 그 아이는 전봇대만큼 키가 크다.
 - ㉡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 ㉢ 나는 우리 집 막내로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있다.
 - ㉣ 오늘을 얼굴을 들수 없을만큼 바람이 심해 돌아가고싶다.

- ① ㉠의 '만큼'은 제42항에 따라 ㉢의 '만큼'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한 마리도'는 제41항에 따라 '한마리도'로 붙여 써야겠군.
- ③ ㉢의 '큰언니', '작은언니'는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들 수'는 제43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⑤ ㉣의 '돌아가고싶다'는 제47항에 따라 ㉡의 '얼씬거리지 않는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겠군.

10)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귀머거리 ② 꼬트머리
- ③ 굽주리다 ④ 부리나케
- ⑤ 꼬락서니

11)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 ② 한국대 브라질의 경기를 관전하였다.
- ③ 너는 너 대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 ④ 고추잠자리 한마리가 호수 위를 맴돌고 있다.
- ⑤ 설악산에서 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다.

12) <보기>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본 뜻에서 떨어진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흠어지다 ② 늘어나다
- ③ 쓰러지다 ④ 넘어지다
- ⑤ 틀어지다

13) 밑줄 친 단어를 준말로 바꾸어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분을 신발장 뒤에 두었다.(→ 뒀다)
- ② 겨울이 되어서(→ 돼서) 반달곰들이 동면에 들어갔다.
- ③ 조퇴증을 보이고(→ 뵈고) 교문을 나가서 병원으로 갔다.
- ④ 벌에 쏘이어서(→ 썩위) 장단지가 붉게 부풀어 올랐다.
- ⑤ 가느다란 실을 꼬아(→ 짜) 여러 겹을 만들자 제법 튼튼해졌다.

14)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을 ‘ㅌ’으로 적는다.
- 제8항 ‘계, 례, 메, 폐, 혜’의 ‘꺠’는 ‘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꺠’로 적는다.
-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 ① 제5항의 사례로 ‘오빠’, ‘아끼다’ 등을 들 수 있다.
- ② 제6항의 사례로 ‘끝이’, ‘묻히다’ 등을 들 수 있다.
- ③ 제7항의 사례로 ‘뫏자리’, ‘웃어른’ 등을 들 수 있다.
- ④ 제8항의 사례로 ‘휴게소’, ‘게시판’ 등을 들 수 있다.
- ⑤ 제9항의 사례로 ‘무늬’, ‘하늬바람’ 등을 들 수 있다.

15)<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 ‘되요. 돼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배웠던 한글 맞춤법 제35항 규정을 살펴보면, “어간 모음 ‘ㅁ’ 뒤에 ‘-어’가 붙어서 ‘ㅁ애’로 줄어든 것은 ‘ㅁ애’로 적는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따라서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요.

학생 : 아, 그러면 (㉠)

- ① ‘되뇌어도’는 ‘돼뇌도’로 줄어들 수 있겠군요.
- ② ‘(햇별을)찌도’는 ‘찌-’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든 것이겠네요.
- ③ ‘(어른을)뵈다’는 ‘뵈-’가 ‘-느냐’가 결합될 때는 ‘뵈느냐’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④ ‘참되이라’는 ‘참되-’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참되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찌-’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쩌더라도’는 틀린 말이겠네요.

16)<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뜻이군.
- ② ‘들어가다’는 [붙임 1]에 의해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군.
- ③ ‘사라지다’는 [붙임 1]에 의해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군.

④ [붙임 2]에 따라 ‘이것은 책이요.’가 아니라, ‘이것은 책이요.’라고 적어야겠군.

⑤ [붙임 3]에 따라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라고 적어야겠군.

17)<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였을 때,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①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 ② 교실에는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③ 강가에 서너 마리의 물새가 날고 있었다.
- ④ 나도 너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내년은 예산은 오천이백육만 삼천사백구십팔 원이다.

18)<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사용된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제8항 ‘계, 례, 메, 폐, 헤’의 ‘κει’는 ‘키’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키’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35항 모음 ‘ㄱ, ㅍ’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아/더/났/셨’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붙임 2] ‘ㅁ’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ㅁ애, ㅁ했’으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제37항 ‘ㄱ, ㅋ, ㆁ, ㅌ,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개, 켜, 니, 기, 니’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기 2

제 삶은 항공 정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늘 꿈이 없다는 ㉡평계를 대던 저는 격납고라는 곳에서 실제 비행기를 보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잔뜩 땀 흘려 일하고 계신지가 고스란히 ㉣들어나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되 날아갈 듯이 기쁠습니다.

- ① ㉠은 제2항에 따라 각 단어를 띄어 써야 하므로 '되면서 부터'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은 제8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평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은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5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잔뜩'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은 '들다'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제15항 [붙임 1]에 따라 '드러나'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은 어간 '되-'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제37항에 따라 '돼'로 줄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밑줄 친 ㉠~㉤ 중에서 띄어쓰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보기

아무런 ㉠희망 없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제 삶은 항공 정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업 체험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로 모형 항공기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격납고라는 곳에서 실제 비행기를 보는 순간, ㉡어찌할바를 모를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하고 ㉢계신 지가 고스란히 들어나 한시도 눈을 ㉣땔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되어 ㉤날아갈듯이 기쁠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밑줄 친 ㉠~㉤ 중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은?

보기

㉠압자에는 해우소가 두곳에 있다. 하나는 새로 지은 신식 요사체에 있고 하나는 채마밭 구석에 있다. 나와 공양주보살 ㉡할머니는 채마밭의 재래식 냄새가 나는 해우소를 사용한다. 헛기침 하고 발소리 내며 다가가면 헛기침 소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그 허름한 예의가 나는 좋다.

또 내가 해우소를 찾는 이유는 호박 달력을 보기 위해서다. ㉢해우소는 뒤에는 오래묵은 거름더미가 있고 거기에는 호박이 심겨 있다. 나는 호박 덩굴 한 줄기를 평지 쪽으로 펼쳐 놓았다. 그리고 이곳에 온 날부터 호박 덩굴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를 땅바닥에 금을 그으며 표시해왔다. 비가 개고 날씨가 무더웠던 ㉣어제는 호박이 일미터 이십센티미터나 자랐다.

㉤호박꽃속에서 나오는 별들의 날개에는 호박꽃가루가 노랗게 묻어 있었다.
- 함민복, '동운암에서 보낸 여름'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 '산과 들에 핀 꽃'이라는 구절을 보고 궁금하게 생겼어요. '들'은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발음이 같은 '들'이지만 '우리들은 학생이다'와 같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도 사용이 돼요. 이런 말이 '들' 하나 밖에 없을까요?

선생님 : 발음이 같지만 다양한 형태의 여러 쓰임새로 쓰이는 말이 국어에는 많이 있어요. '들'의 경우에도 학생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쓰임이 있지요. 그럼 '들'의 쓰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와 비슷한 경우의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문을 찾아볼까요?

	들	개	막
명사	㉠ (들)	㉡ (개)	㉢ (막)
접두사	㉣ (들-)	㉤ (개-)	㉥ (막-)
접미사	㉦ (-들)	㉧ (-개)	
용언의 어간	㉨ (들-)	㉩ (개-)	

-
- ① ㉠에는 ‘들녘을 바라보다’를, ㉡에는 ‘친구를 들볶다’를 쓸 수 있겠군.
 - ② ㉢에는 ‘어서들 밥을 먹어라’를, ㉣에는 ‘가방을 들다’를 쓸 수 있겠군.
 - ③ ㉤에는 ‘우리 개는 귀여워’를, ㉥에는 ‘개살구는 못 먹는다’를 쓸 수 있겠군.
 - ④ ㉦에는 ‘뉘개를 뉘다’를 ㉧에는 ‘이불을 개다’를 쓸 수 있겠군.
 - ⑤ ㉨에는 ‘연극의 막이 내렸다’를, ㉩에는 ‘막힘현상이 발생하다’를 쓸 수 있겠군.